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en

강양희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Yang-Hee Kang(lamb33@cs.ac.kr)

요약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C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 188명이었으며, 자료는 2014년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정도는 중간이상이었고, 이는 학력, 결혼상태, 직업, 평균소득, 경제수준, 고용형태, 동거형태,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를 51.5%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가족지지 | 사회적 지지 | 삶의 만족도 | 중년남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men. Data were collected from 188 middle aged men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Levels of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were moderat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average income, economic status, employment status, living arrangement, and health status.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explained 51.5% of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for promoting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men.

■ keyword : | Family Support | Social Support | Life Satisfaction | Middle-Aged Men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8.5세로 인생주기에서 중년의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할 만큼 인구구성 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1]. 중년기는 중심세대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환경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2][3]. 특히 중년남성의 경우, 다양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신체적으로는 노화에 대한 적응, 가족적으로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변화, 사회적으로는 직업적 절정에서 은퇴나 퇴직의 경험 등 다각적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한 갈등과 불균형, 이를 통한 인생단계의 결정적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4].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남성의 대부분은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기인 이 기간에 이르러 갑자기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에 회의를 갖게 되면서 그 동안 추구해 왔던 삶의 가치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5]. 이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은 한 가정의 가장인 동시에 사회발전의 중심축인 중년남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까지 미치는 파장이 크고 중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중년남성이 인지하는 삶의 의미와 만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6].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느낌의 복합적 상태로 자기가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주관적인 인지를 의미한다[7].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의 중년남성들은 자신보다는 가족의 건강, 화목, 자녀의 성공 등에 삶의 의미를 두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으로 인해 가족요인이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특히 중년남성의 경우,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한 사회를 이끌어 온 역군으로서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사회적 관계 등을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중요한 측정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5][6][8]. 이처럼 기

존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삶의 요소들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가족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사회의 중년남성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조기퇴직, 실직, 부도, 가정해체, 빈부의 격차 등의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직, 간접적인 가족적·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3][4]. 따라서 이러한 가족적·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는가를 파악하여, 중년기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계획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간호 분야에서도 중년기 이후의 삶이 점차 길어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중년기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중년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건강문제의 이환율이 높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들어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중년남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개념적, 방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2-5][9-11]. 더욱이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 잘 적응하고, 질적인 잔여 생애의 영위를 위해 중년남성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일부 가족지거나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를 개념으로 한 연구들도 중년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단편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살펴보았을 뿐 이들 개념 간의 관계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12][13].

따라서 최근의 사회·경제구조 속에서 다각적 측면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한국의 중년남성이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보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삶의 만족과 연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들 가운데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선택하여 한국의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와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 모색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4) 대상자의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경상남도에 C시에 거주하는 만 40-59세 사이의 중년남성으로서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국문해독과 대화가 가능한 자 22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 표본의 수는 G*Power3.1.5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power = .95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위한 최소 표본 수는 총 153명이었으나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표본수를 확대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7월 27일부터 동년 8월 11일까지였

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윤리준수 및 설문지 수집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4인이 중년남성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 참여의 자율성, 자료수집의 익명성, 비밀보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 자신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작성한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하였다. 대상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총 30분 정도로 설문지에 성의 있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94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고 부적절하게 작성된 설문지나 일관적인 답변을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188부(96.9%)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3.1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신금미[14]가 개발한 사회적지지 도구 중 가족 지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2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배점하였으며,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신금미[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이영자[15]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본다. 이영자[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3.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Campbell[16]의 도구를

정혜영[17]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삶의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이며, 각 문항은 ‘지루한-재미없는/ 비참한-즐거움/ 쓸모없는-가치 있는/외로운-우호적인/텅 빈-가득한/비관적인-희망적인/실망스러운-보람 있는/운이 없는-행운이 따르는’ 등의 7점의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혜영[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93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등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고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지지와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22세, 자녀수는 평균 2.25명, 근무 연수는 평균 17.87년, 결혼기간은 평균 19.13년이 었다. 대상자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107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149명(79.3%)이 기혼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139명(73.9%)이었고, 102명(54.3%)은 규칙적으로 하는 취미활동이 있었다. 직업으로는 자영업 40명 (21.3%), 기능 및 기술직 38명(20.2%) 순으로 많았고 월 평균소득은 300~399만원이 79명(42.0%)로 가장 많았 으며, 경제수준은 152명(80.9%)이 중류층이라고 답하였 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39명(73.9%)이었고, 115명

(61.2%)이 아내 및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건강상태 는 75명(39.9%)이 ‘보통’, 66명(35.1%)이 ‘좋다’, 5명 (2.7%)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8)

특성	평균±표준편차(최대값-최소값)		
나이	50.22±5.74(40-59)		
자녀수	2.25±1.06(0-6)		
근무 연수	17.87±9.33(0-45)		
결혼기간	19.13±9.47(0-40)		
특성	분류	N	%
최종학력	중졸	22	11.7
	고졸	107	56.9
	대졸(전문대 포함)	46	24.5
	대학원졸	11	5.9
	기타	2	1.1
결혼상태	기혼	149	79.3
	미혼	13	6.9
	별거	8	4.3
	이혼	15	8.0
	사별	3	1.6
종교	유	139	73.9
	무	49	26.1
취미활동	유	102	54.3
	무	86	45.7
본인 직업	공무원	18	9.6
	전문직	18	9.6
	사무직	33	17.6
	서비스 및 판매직	16	8.5
	단순노무직	17	9.0
	자영업	40	21.3
	기능,기술직	38	20.2
	무	8	4.3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8	14.9
	200~299만원	52	27.7
	300~399만원	79	42.0
	400만원 이상	29	15.4
경제수준	상류층	13	6.9
	중류층	152	80.9
	하류층	23	12.2
고용형태	정규직	139	73.9
	비정규직	49	26.1
동거형태	부모/아내/자녀	24	12.8
	아내/자녀	115	61.2
	아내(자녀 독립)	15	8.0
	본인/자녀	13	6.9
	혼자	21	11.2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5	2.7
	좋지 않다	23	12.2
	보통이다	75	39.9
	좋다	66	35.1
	매우 좋다	19	10.1

2.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정도는 [표 2]와 같았다. 대상자의 가족지지는 평균 3.59±0.71,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8±0.65, 삶의 만족도는 평균 4.82±1.07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정도 (N=188)

특성	평균±표준편차	척도범위	최소값	최대값
가족지지	3.59±0.71	1~5	1.17	4.83
사회적지지	3.58±0.65	1~5	1.24	4.88
삶의 만족도	4.82±1.07	1~7	1.50	6.75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정도의 차이 (N=188)

특성	분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M±SD	t or F(p) Scheffe's
최종학력	중졸	3.37±0.71	1.233 (.298)	3.32±0.70	1.758 (.139)	4.52±1.16	3.610 (.007)
	고졸	3.56±0.78		3.56±0.68		4.64±1.12	
	대졸(전문대 포함)	3.73±0.54		3.73±0.51		5.19±0.78	
	대학원졸	3.76±0.51		3.75±0.63		5.40±0.80	
	기타	3.63±0.88		3.48±1.07		5.25±1.77	
결혼상태	기혼 ^a	3.78±0.52	21.938 (.001)	3.73±0.53	12.732 (.001)	5.01±0.90	12.806 (.001)
	미혼 ^b	3.28±0.88		3.40±0.79		4.86±1.27	
	별거 ^c	2.83±0.54		2.93±0.30		4.06±0.84	
	이혼 ^d	2.49±0.91		2.82±0.88		3.26±1.26	
	사별 ^e	3.03±0.21		2.85±0.73		4.63±0.70	
종교	유	3.63±0.69	1.341 (.181)	3.63±0.62	1.567 (.119)	4.88±1.02	1.451 (.148)
	무	3.47±0.75		3.46±0.72		4.63±1.18	
취미활동	유	3.81±0.51	4.917 (.001)	3.80±0.48	5.409 (.001)	5.10±0.84	4.210 (.001)
	무	3.34±0.81		3.32±0.73		4.47±1.21	
직업	공무원 ^a	3.69±0.44	3.423 (.002)	3.75±0.53	3.227 (.003)	5.08±0.91	5.483 (.001)
	전문직 ^b	3.92±0.47		3.92±0.50		5.67±0.67	
	사무직 ^c	3.64±0.73		3.59±0.68		4.91±0.77	
	서비스 및 판매직 ^d	3.83±0.54		3.74±0.44		4.80±0.96	
	단순노무직 ^e	3.00±0.87		3.02±0.77		3.82±1.19	
	자영업 ^f	3.59±0.70		3.60±0.55		4.89±0.106	
	기능·기술직 ^g	3.61±0.65		3.56±0.64		4.75±1.05	
	무 ^h	3.09±1.01		3.33±1.04		3.98±1.46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a	3.07±0.85	8.489 (.001)	3.26±0.77	6.553 (.001)	4.17±1.25	7.728 (.001)
	200~299만원 ^b	3.51±0.73		3.43±0.69		4.69±1.09	
	300~399만원 ^c	3.73±0.62		3.69±0.56		4.91±0.93	
	400만원 이상 ^d	3.84±0.46		3.88±0.53		5.42±0.85	
경제수준	상 ^a	3.89±0.51	14.428 (.001)	3.90±0.48	14.957 (.001)	5.54±0.80	19.984 (.001)
	중 ^b	3.66±0.60		3.62±0.52		4.68±0.79	
	하 ^c	3.23±0.84		3.26±0.79		4.39±1.29	
고용형태	정규직	3.66±0.64	2.386 (.018)	3.66±0.59	2.814 (.005)	4.87±1.02	1.176 (.241)
	비정규직	3.38±0.83		3.36±0.76		4.66±1.19	
동거형태	부모/아내/자녀 ^a	3.75±0.45	13.832 (.001)	3.67±0.59	7.631 (.001)	5.24±0.99	8.954 (.001)
	아내/자녀 ^b	3.78±0.54		3.73±0.54		4.98±0.87	
	아내(자녀 독립) ^c	3.31±0.45		3.35±0.57		4.24±0.99	
	본인/자녀 ^d	3.31±0.90		3.35±0.63		4.92±1.07	
	혼자 ^e	2.75±1.04		3.00±0.95		3.78±1.48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a	3.92±0.42	16.451 (.001)	3.74±0.80	19.353 (.001)	5.25±0.36	12.999 (.001)
	좋지 않다 ^b	2.79±0.88		2.82±0.82		3.63±1.22	
	보통이다 ^c	3.49±0.55		3.46±0.48		4.73±0.94	
	좋다 ^d	3.80±0.61		3.83±0.51		5.11±0.88	
	매우 좋다 ^e	4.14±0.51		4.09±0.50		5.45±0.9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정도의 차이는 [표 3]과 같았다.

대상자의 가족지지는 결혼상태($F=21.94, p<.001$), 취미활동($t=4.92, p<.001$), 직업($F=3.42, p=.002$), 평균소득($F=8.49, p<.001$), 경제수준($F=14.43, p<.001$), 고용형태($t=2.39, p=.018$), 동거형태($F=13.83, p<.001$), 건강상태($F=16.45, p<.001$)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별거나 이혼보다 미혼이 이혼보다 가족지지가 높았으며, 직업에서는 전문직이 단순 노무직보다, 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 대상자들이 200만원 미만 대상자보다, 경제수준을 '상' 또는 '중'이라고 인식한 대상자가 '하'라고 인식한 대상자보다 동거형태에서 부모나 아내 자식과 거주하는 대상자가 혼자 사는 대상자보다 가족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라고 인식한 대상자는 다른 대상자보다 가족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상태($F=12.73, p<.001$), 취미활동($t=5.41, p<.001$), 직업($F=3.23, p=.002$), 평균소득($F=6.55, p<.001$), 경제수준($F=14.96, p<.001$), 고용형태($t=2.81, p=.005$), 동거형태($F=7.63, p<.001$), 건강상태($F=19.35, p<.001$)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별거나 이혼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 직업에서는 전문직이 단순 노무직보다, 평균소득이 400만원 대상자가 200만원 미만이나 200~299만원인 대상자보다, 경제수준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가 '중'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보다 또 '중'이라고 인식한 대상자가 '하'라고 인식한 대상자보다, 동거형태에서 부모나 아내 자식과 거주하는 대상자가 혼자 사는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라고 인식한 대상자는 다른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최종학력($F=3.61, p=.007$), 결혼상태($F=12.81, p<.001$), 취미활동($t=4.21, p<.001$), 직업($F=5.48, p<.001$), 평균소득($F=7.73, p<.001$), 경제

수준($F=19.98, p<.001$), 동거형태($F=8.95, p<.001$), 건강상태($F=13.00, p<.001$)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과 미혼이 이혼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업에서는 전문직이 단순 노무직이나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평균소득이 400만원 대상자가 200만원 미만이나 200~299만원인 대상자보다, 경제수준을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가 '중'이나 '하'라고 인식한 대상자보다, 동거형태에서 부모나 아내, 자식과 거주하는 대상자가 혼자 사는 대상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라고 인식한 대상자는 다른 대상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지지($r=.706, p<.001$) 및 사회적 지지 ($r=.673, p<.001$)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r=.838, p<.001$)와 강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4.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변수	가족지지 r(p)	사회적지지 r(p)	삶의만족도 r(p)
가족지지	1		
사회적지지	.838(<.001)	1	
삶의 만족도	.706(<.001)	.673(<.001)	1

5.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beta=.476, p<.001$)와 사회적 지지 ($\beta=.274, p=.00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형의 설명력은 51.5%이었다[표 5].

표 5.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β	t	p
상수	.620	.306		2.013	.046
가족지지	.720	.141	.476	5.103	<.001
사회적지지	.449	.153	.274	2.934	.004

Adj. R² = .515, F=100.346,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정도와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평균 3.59점(1~5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8점(1~5점), 삶의 만족도는 평균 4.82점(1~7점)으로 모두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거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가족지지의 경우, 저소득층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의 3.75보다 낮았고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중년여성에 대한 연구[19]에서의 3.57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표집 대상 집단 및 성별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중년남성에게 가족의 지지는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지지의 자원이 된다는 선행연구[5]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현재 한국 중년남성들이 인지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선행 연구[20]에서의 3.58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또 다른 중년여성 대상의 연구[21]에서의 3.91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 또한 표집 대상 집단과 성별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년남성이 중년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가족지거나 사회적 지지를 적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중년남성의 경우, 중년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건강과 불안

을 받을수록 가족필요성을 느끼며 한사건의 스트레스는 대처능력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지만 사건이 중첩되거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3][5]. 따라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지거나 사회적 지지의 주관적 인지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지거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5] 이들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중년남성의 갱년기 증상과 관련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12]에서도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중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23][24]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와 삶의 만족도와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어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보는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는 공통적으로 결혼상태, 취미활동, 직업, 평균소득, 경제수준, 동거형태, 건강상태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가 기혼, 전문직, 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부모나 아내, 자식과 함께 사는 경우,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할수록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2]에서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종교유무, 건강상태, 연평균 소득, 재직기간에 따라 가족지지의 인지에 대한 차이를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김정엽[23]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배우자,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은퇴전환기의 특성과 삶의 만족의 변화

에 대한 기존 연구[14]에서도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족관계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엽[23]의 연구에서도 교육정도, 경제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돕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가족지지는 삶의 만족도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도 삶의 만족도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가족지지와 사회적지지도 강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성노인에게 있어 가족지지도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김정엽[23]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안정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하다가 사회적으로 한 발 물러나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기인 중년기의 삶의 적응 증진에는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심리적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어 가족 및 사회적 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시에는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를 51.5% 설명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23][2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성의 경우 가정과 사회 두 영역으로부터 서로 다른 역할기대를 만족시키고 적응해 나가야 하므로 이 두 영역에서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부담감을 지니고 있기에[3]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26]에

근거하여 보면, 가족은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할 때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망이면서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기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재정적 지원은 주관적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이 유지하는 가족적·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가족적 관계망이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년남성의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년 남성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에는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연계한 접근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남성에게는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년 남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충분한 관련변인을 고려해서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다양한 변수들의 고려와 함께 심층면접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년남성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더불어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활용을 고려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 [1] 인구보건복지협회,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2013.

- http://www.ppfk.or.kr
- [2] 김미량, 송강영, “중년남성의 운동변화단계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pp.393-402, 2009.
- [3] 이희운, 박정운,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69-192, 2011.
- [4] 강모성, 전영주, 손태홍, “기혼중년남성의 직무 및 가족 스트레스와 자살구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05-134, 2008.
- [5] 안진석, *중년남성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6] 장소라, *사회적 바람직성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을 통한 경로모형 탐색*,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7] 한숙정, 권명순, 윤오순, “중년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 비교,” 가정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83-194, 2012.
- [8] 김미정, 김귀분,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9권, 제2호, pp.150-158, 2013.
- [9] 김금자, *중년남성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10] 이영희,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pp.539-549, 2002.
- [11] 서정훈, “중년남성의 복합운동프로그램에 따른 신체구성, 건강관련체력 및 혈중지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5권, 제2호, pp.177-185, 2005.
- [12] 김정희, 이영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6권, 제5호, pp.186-195, 2005.
- [13] 신금미, *암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4] 강은나,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특성과 삶의 만족 변화,”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36권, pp.1-8, 2014.
- [15] 이영자,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16] A. Campbell, “The sens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31, pp.117-124, 1981.
- [17] 정혜영, *위험군 노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연구: 대전지역 가정간호서비스 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8] 이경우, 박기수, 강윤식, 김복범, 김보경, 서애립, “일개 시지역의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가족 지지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6권, 제3호, pp.15-23, 2009.
- [19] 강경자, 이은진,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중년여성이 지각한 가족지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류마티스건강학회지, 제7권, 제1호, pp.5-24, 2000.
- [20] 허제은, 태영숙, “중년여성의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pp.181-190, 2014.
- [21] 이희연, 전해성 “중년기 여성의 삶의 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275-284, 2011.
- [22] 최명화, 조성숙,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226-241, 2014.
- [23] 김정엽,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제20권, 제2호, pp.29-62, 2010.
- [24] 정순돌, 성민현,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pp.249-272, 2012.
- [25] 김희숙, 유광자,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4호, pp.461-470, 2013.
- [26] 이미애,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과 수발자 간 장기요양보호 인식에 대한 견해 차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pp.61-72, 2007.

저 자 소 개

강 양 희(Yang-Hee Kang)

정회원



- 1999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창신대학
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건강증진, 여성 및 임산부 건강
증진